

주임신부: 김대하(사도 요한)
본당회장: 조우호(바오로)
TEL : (905) 545-3004
FAX : (905) 545-7895

연중시기

사람의 생명은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루카 12, 15)



현 참여 가구 수: 45가구 (지난 주 누계: 45가구)
총 약정액: \$110,000 **현 모금액: \$86,409 (78.5%)**

One Heart One Soul 은 교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교구 사이트 (<https://www.oneheartonesoul.ca/give>) 참조 바랍니다.

※ 주소 변경 및 신용카드 변동 사항은 김성수(베드로) 형제에게 문의 바랍니다.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견진성사 2년에 1회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혼인성사 6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온라인

견진 교리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주 미사 후

셋별 Pr. 매주 주일 10시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1:00

사랑하늘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50

바뇌 성모 기도회 매월 1,3주 (토) 10:00

울뜨레아 매월 1주(목) 성시간 후



현 참여 가구 수: 45가구 (지난 주 누계: 45가구)
총 약정액: \$110,000 **현 모금액: \$86,409 (78.5%)**

One Heart One Soul 은 교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교구 사이트 (<https://www.oneheartonesoul.ca/give>) 참조 바랍니다.

※ 주소 변경 및 신용카드 변동 사항은 김성수(베드로) 형제에게 문의 바랍니다.

본당 소식

◎ 전례 안내

▶ 9/15(일) 한가위 미사 (본당 11:30, 공소 17:30)

 미사 중 분향이 있습니다.

▶ 9/17(화) 연중 제 24 주간 화요일 미사 (본당 20:00)

▶ 9/22(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본당 11:30, 공소 17:30)

◎ 성당 내 방충 방역(Pest Control) 계약

이번 달부터 1년간 업체로부터 성당 내 방충 방역 작업이 시작
되었습니다. 성당 구석구석에 “ABELL”이라는 상자는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 성모회 단풍관광

식사 및 사전 준비를 위하여 가능하면 신청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 친지도 초대하셔도 됩니다.

일시: 10/5(토) 7시 성당 집합, 7:30 출발

장소: 미드랜드 성지

회비: \$30

예상 정원 인원: 50명

문의: 성모회장 우경숙 윤리아

◎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사랑으로 봉사 해 주실 선생님을 찾습니다.

문의: 박혜영 수산나

◎ 2024-2025 주일학교 안내

신청서는 성당 정문앞 테이블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강 예정일: 9월 15일

대상: 유치부 - 6학년 문의: 박혜영 수산나

※ 일구 쪽 마지막 줄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 해밀頓 성 유대절 본당 30주년 축하 골프대회

▶ 접수 9/22(일) 까지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정 및 장소: 9/28(토) 12:00 South Brook GC

▶ 골프 준비 위원회 회의가 15일, 22일, 27일 대체실에서
있습니다

문의: 행사분과장 김한욱 에릭

공소 소식

▶ 공소 성지 순례

일시) 10월 12일 (토) 오후 1시 미사

장소) 베팔로 파티마 성당

(National Shrine Basilica Our Lady of Fatima)

기타) 도시락 각자 지참

(영주권자와 비자소지자

- 사전에 미국 국경에서 194 발급요망)

문의) 총무 김재익 베네딕도

▶ 금일 식사는 성모회에서 준비해주셨습니다.

감사히 잘먹겠습니다.

▶ 축하합니다. 9월 공소 신자 축일자

(9/1) 남클린턴 프란치스코

(9/29) 진영천 미카엘

단체 소식

▶ 꾸리아 회합: 9/15(일) 13:30 하상실

구역 소식

1 구역 9/21 토 11:00 대체실

2 구역 9/21 토 13:00 신용두 세バス찬 형제님 댁

3 구역 9/21 토 12:00 하상실

5 구역 9/22 일 13:30 친교실

7 구역 9/21 토 17:30 박신준 비오 형제님 댁

친교식사

9/15: 성모회(추석)

9/22: 4 구역

9/29: 6 구역

9/ 8: 5 구역

우리들의 정성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 121 명)			
주일헌금	\$1430	교무금	\$180
감사헌금	\$0	성전건립	\$70

감사합니다.

도네이션 성가대 (주수원 수산나 자매님, 익명)
성모회(신용숙 수산나 자매님 \$200
주수원 수산자 자매님 \$100)

삼종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임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
- 하느님, 천사의 아름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그

◎ 9월 본당 세례 축일자 (44명)

9/ 3 그레고리오(박기형, 김준홍), 그레고리아(김정혜)

9/ 4 모니카(이경구)

9/ 5 데레사(김지혜, 이순복, 민연환, 권민아)
제노(이준우)

9/ 7 레지나(황미옥, 이나라)

9/ 8 아델라(정세빈), 마리아(홍미경)

9/17 힐데가르트(이은영)

9/18 소피아(소성희), 리카르다(송지은)

9/21 마태오(정현기, 권재성, 정원규)

9/23 비오(박신준) 9/26 유스티나(홍유나)

9/29 미카엘라, 정나현, 조정순, 이병예, 김재원, 박아인)
미카엘(윤성희, 강호경, 흥민준, 김세현, 손정일,
유준, 정상현, 이영선)
라파엘라(정가현, 양남숙, 김지원, 박해인)
라파엘(양향남, 유세진)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9/15	신낙홍 마리아	유세진 라파엘 최다혜 플로라	1 독서: 이은영 힐데가르트 2 독서: 강지원 요안나	김성수 베드로 이재순 데레사
9/22	김성수 베드로	최다인 안나 이준규 안드레아	1 독서: 이인선 젬마 2 독서: 박규혜 카타리나	이운영 힐데가르트 강지원 요안나
9				



우리는 세상에 초대된 '손님'입니다.

과길섭 베드로 신부
범서성당 주임

한가위엔 한 해의 결실을 나눕니다. 이는 그 결실이 있기까지 훈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삶임을 잘 알고, 분명 '함께' 이루어낸 결실들이기에 감사의 마음을 듬뿍 담아 나누며,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입니다.

한가위엔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을 기억합니다. '나그네 살이인 인생길'을 먼저 마무리한 분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이 세상 여정을 마무리하고 하느님 나라에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분들이 하느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한가위엔 자신을 돌아봅니다. 가끔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 나그네'를 말씀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는 데, '과부와 고아, 이방인이나 나그네'는 먼 곳에 있는 그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로 우리 각자 자신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세상에 '손님'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부이고 고아이며 이방인이고 나그네일지도 모르겠고, 바로 우리가 '주님 위로의 수혜자들'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손님'으로 왔지만, 주인처럼 살다가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처럼, 분명히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집 안에 좋은 손님을 모시면 복이 들어온다는 말처럼, 세상이 나를 좋은 손님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통해 세상에 복이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마음껏 나눕니다. 그래서 세상은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주님 안에서 죽은 이들은 행복하다.'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손님으로 살지 못하고, 나그네요 이방인으로서의 삶은 더더욱 잘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하느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도 이 세상에 초대되었던 '손님'이었고, 우리 모두도 이 세상에 초대되어 온 '손님'임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주님 말씀도 잘 따르며, 풍요로움도 잘 나누는 복된 명절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주 너희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요엘 2,23)